아리스토텔레스 『시학(시작술)』 연구

제4강 드라마에 있어서의 모방

1교시

◆ 모방의 양태와 드라마의 희·비극

▲ 행동하는 인간의 성격에 따른 모방 - 성품으로서의 선과 악

그 다음에 2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모방에 대한 얘기를 2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 보면 **"모방자는 행동하는 인간을 모방하는데, 행동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인(善人)이거나 악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모방하는 사람이니까 주로 시인들을 가리키겠지요. 시인은 행동하는 인간을 모방하는데 이때 행동한다는 말, 밑에 천병희 선생의 프라테인 이라는 말, 그 말이 "액션 하는 것을 모방하는 데, 행동하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선인이거나 악인이다." 이게 스프다이오스라는 말이 모방하는 사람들은 스프다이오스 하거나 파울로스 하는 사람을 모방한다. 선인, 악인 이 경우보다는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스프다이오스, 파울로스, 나쁜 놈, 좋은 놈. 스프다이오스라는 건 어떤 경우에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랬을 수도 있고, 진지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다, 여러 가지 번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파울루스 하다는 말, 인간의 성품이 훌륭하다 하는 특징에서 선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우리말의 선인이라는 게 좋은 사람 이게 애매하긴 한데 그 캐릭터에 있어서 성격이 훌륭하냐, 성품이 훌륭한 사람을 모방하느냐, 성품이 조금 떨어지는, 성품이 캐릭터가 하이한 놈을 모방하느냐, 조금 로우한 놈을 모방하느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선인, 악인이라 하면 너무 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천병희 선생님의 번역은. 나중에 비극의 주인공이 어떤 캐릭터를 가져줘야 하느냐 하는 대목에 가면, 이 말이 선인이나 악인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캐릭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는 게 나와요. 선인이나 악인의 의미 이게 무엇이겠느냐? 했을 경우에는 일단 그 사람의 성품이 좋으냐, 떨어지는 사람이냐 이런 걸 모방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성격이 거의 언제나 이 두 범주에 속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덕과 부덕에 의하여 그 성격이 구별되기 때문이다." 캐릭터가 좋으냐, 나쁘냐, 인간은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이 두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덕과 부덕에 의해서 아라테(arete)와 카키아(kakia). 아라테 라는 말이 덕이란 말이고, 카키아 라는 말이 부덕이라고 번역하셨어요. 성품이 좀 떨어지는 것. 하여튼 반대되는 거지요. 아까 그 사람의 덕이라고 말하면 크게 잘못 된 것은 아니지만, 그 말 아라테, 카키아 이 말도 뒤에 가면, 파울루스라는 말 아까 했던 스프다이오스 하고 파울루스 하다는 것,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겠느냐, 이게 나중에 가면 복잡한 대목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언어에 있어서 인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라테와 카키아에 따라서 구별된다." 사실 이 사람은 삭제하자는 표현으로 썼네요. 이 사람의 번역에는 badness와 goodness라고 번역했네요. 덕을 goodness라고 했고, 부덕이라는 말을…, 근데

www.artnstudy.com

그 말도 순서가 바뀌어있네요. 카키아가 앞에 나와 있고, 아라테가 뒤에 나와 있고. 덕과 부덕이라는 말로 악덕과 덕. 번역한다면 카키아와 아라테에 대립되는 말로 여기서 썼는데 여기에서 카키아 라는 말이. 덕과 악덕. 어쨌든 여기에서는 부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주 3에 보면, "어떤 도덕적인 기술은 아니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덕과 악덕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제가 탁월성이라고 쓴 말이 훌륭함, 뛰어남, 어떤 성품의 뛰어남 이런 의미이지, 도덕적인 선, 도덕적인 악 이렇게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모방할 때 인간이 아라테가 뛰어난 사람도 있고, 탁월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모방자는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을 모방한다. 그러나 도덕적인 의미를 넘어 선과 악으로, 선인과 악인이라 하는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좀 안 될 듯합니다. 아라테 라는 말뜻도 그렇고, 카키아 라는 말도 그렇고요.

▲ 세 종류의 성격과 그 효과

따라서 모방의 대상이 되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특히 우리 인간을 모방하는 거잖아요? 다른 모방하는 문학의 장르 중에 음악이라든가, 피리, 아울루스 라든가 하는 것들은 인간을 모방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모방하지만, 새, 짐승의 모방, 그림과 같은 것은 다른 걸 모방하지만, 드라매논 이라는 말, 드라마라는 말은 '행동하다'라는 의미에서 왔거든요. 드라마, 드라매논. 나중에 어원 얘기에도 나오지만, 드라마라고 하는 것이 행동하는 인간을 모방할 수 밖에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 이상의 보통 사람들, 이게 이 대목에 나중에 비극의 주인공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런 것 얘기 나오는데, 모방하는 데 있어 아라테 라는 것이 우리 평균 사람이 있고, 이 보다 높은 사람을 하느냐, 좀 떨어지는 사람을 모방하느냐, 혹은 우리와 같은 사람을 모방하느냐. 하여튼 아라테가 뛰어난 사람이라든지, 아라테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면서도 근데 위에 보면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아라테와 카키아의 두 종류의 성품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몇 째 줄에는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에 와서는 왜 "우리와 동등한 인간을 모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첨가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와 같은 사람 모방한 것은, 그런 얘기도 있어요.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가령 오이디푸스의 연극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은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지요. 보통 이상의 보통 사람들보다도 뭔가 뛰어난 아라테,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모방하지요. 그러면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을 모방해서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드라마, 비극이 노리는 효과, 비극이 갖는 예술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우리가 이따 더 중요한 건 얘기 많이 나올 텐데 어떤 비극이 성립되려면 카마르티아 라는 게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 미스테이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 떨어지는 사람들은 어차피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도 그런 잘못 저지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보다 덕이 뛰어난 사람이, 아라테가 탁월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에서 파생되는 그 사건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극적인 효과 같은 것이 더 높을 거예요. 우리보다 성품이 낮은 사람을 모방하면 일종의 코미디 같은 것이 될 거에요. 가령 보통 사람보다 낮은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스개꺼리 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튼 첨가된 부분은 후세에 헬레니즘 학자들이 첨가 시킨 게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방의 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인간이고,

www.artnstudy.com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테가 높은 사람이 있고, 조금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 모방하는 데 있어서 모방하는 인간들의 세 유형 이게 있고요. 세 종류의 사람을 모방한다는 얘기. **"그것들은 화가들의 경우와도 같다. 왜냐하면 폴뤼그노토스는 우리들 이상의 선인을, 파우손은 우리들 이하의 악인을, 뒤오뉘시오스는 우리와 동등한 인간을 그렸기 때문이다."** 이게 다 희랍의 화가들이고요, 화가들도 아마도 사람의 인물을 그릴 때 이 세 유형의 인간들을 모방했다는 것.

▲ 비극과 희극에서의 성격모방의 차이점

그 다음 48a의 8행에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모방도 각각 이러한 차이점을 가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상이한 대상을 이와 같이 상이한 방법으로 모방함으로써 각 모방이 상이하리라는 것은 명백하다. 무용이나 피리의 취주나 키타라의 탄주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가능하며, 산문이나 음악의 반주가 없는 운문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는 가능하다. 예컨대 호메로스는 우리들 이상의 선인을…." 이제 자기가 한 일반적으로 모방자는 이러한 인간의 성격에서 세 종류를 가질 수 있는 성품에서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세 사람을 화가도 모방하고 그 다음에 호메로스의 경우에는 우리들 인생의 선인들, 그건 영웅들이거든요. 호메로스 경우는 아가메논, 아킬레우스, 오디세우스 다 우리가 뛰어난 영웅들이지요. 그 당시로써는 얼굴 잘 생기고, 아는 것 많고, 지적인 능력도 탁월하고 이런 사람들이지요.

"클레오폰은 우리와 동등한 인간을, 그리고 맨 처음으로 파로디아를 쓴 타소스의 헤게몬과 『데일리아스』의 작가 니코카레스는 우리들 이하의 악인을 그렸던 것이다." 지금은 이 내용은 아무것도 전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 이름하고 작품 이름만 전해지고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보고 속에서 당시의 이런 작품들이 다 어디에 있겠느냐. 모르지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있었는데 다 없어졌을 수도 있고 하여튼, 다 전해지지 않고 어떤 이름만 대개 전해지고 내용도 간단하게 아는 정도만….

그 다음 "디튀람보스와 송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에 있어서도 …와 아르가스 쓴…" 그러니까 '…' 나온 것이 텍스트가 파손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티모테오스와 필록세노스가 쓴 『퀴클롭스』 …" 퀴클롭스 라는 것은 폴리페모스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퀴클롭스 족의, 거인들이 나오는, 호모에 나오는 같이 등장인물들을 상이하게 모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비극과 희극의 차이에 대한 언급도 한 마디도 나오네요. "희극은 실제 이하의 악인" 파울루스한 놈들을 모방하고 비극은 보통 사람의 이상을 모방하고 비극과 희극의 모방하는 그 인간을 모방하는 데… 행동하는 인간을 모방하는데 어떤 사람을 모방하느냐? 비극과 희극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지요. 희극이라는 게 'The War' 만든 분, 그분도 보통 사람의 이하의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을 (모방)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을 던져 주는 것이지요. 나중에 이것이 하나의 비극의 주인공에 관련 되서 비극이 주인공이 갖는 어떤 그 사람의 성품에 관련된 얘기할 때 다시 연결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www.artnstudy.com

▲ 모방양식에 있어 시인의 역할

다음 3장에 와서는 이들 여러 가지 모방에는, 제 3의 차이는 각종의 대상을 모방하는 양식에 있다. 예술과 시인의 역할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호메로스가 한 것처럼 때로는 서술체로, 때로는 작중 인물이 되어 말할 수도 있고…"** 이게 서사시 같은 경우지요. 서술체로 작중 인물이 되어 말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한 변화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체**로만 말할 수도 있고, 일종의 서정시 같은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를테면 디튀람보스 같은 것, 서정시가 디튀람보스에서 발전해 왔거든요. 서정시와 같은 것, 일종의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체로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서사시라는 게 뭐냐면 호메로스처럼 때로는 서술체로 때로는 작중 인물이 되어 작중 인물이 등장하지요. 아킬레우스도 등장하고 아테네도 등장하고…, 거기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기들이 직접 말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모방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실연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플라톤의 국가편에서 말하는 것, 국가편 3권에서 플라톤이 하고 있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차이는 없고 392c에서 398b까지, 여기는 394d부터 398b까지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 이 경우는 "모방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실연하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연기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측면. 그 세 가지 방식, 모방하는 양식에 있어서 세 가지가 있다는 측면. 이것은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한 얘기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모방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모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주로 액터를 가리킵니다. 배우들이 직접 연기하게 하는 것, 액션을 통해가지고, 그들의 작업을 통해가지고 하는 것.

▲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방예술 옹호 - 예술의 자율성

이점이 어찌 보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차이일 수도 있는데, 배우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어떤 대상을 모방한다. 이 세 번째 보면 지금 이미테이터 라고 했잖아요. 이미테이터 인데, 그게 이제 모방자라고 번역한 것, 배우인데, 액터 인데 배우가 실연한다, 무언가를 어떤 것을 모방의 대상으로 삼아서 한다. 가령 플라톤 입장이라면 모방의 본질에 대한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플라톤 같으면 뭐라고 했냐면, 국가편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바와 같이 모방에 대해서 거부감을 일으켜 준 것은 실제로부터 3단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의 거짓의 거짓을 모방한다, 질로부터 멀다 하는 측면. 그 뿐 아니라, 이 모방의 결과가 어떤 우리에게 전염력을 준다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가령 어떤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동영상, 야동이라고 말합니까? 그런 동영상을 봐서, 그놈을 모방해서 전염력 때문에 내가 그런 이놈을 그대로 흉내 냈다, 그래서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나쁜 영향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전염력이란 인펙션 이라는 게, 그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모방하는 것들, 이런 것을 제거 시켜야한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방하는 양식에 있어서 세 가지 동일한 대상을 모방한다고 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액터가 모방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중 인물이 되어서 서술체로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서정시와 같이 그저 작중 인물이 되지 않고 그저 서술만 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는 배우가 돼서 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만약에 모방자가 무언가를 모방해서 실제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가 지금 무엇을 모방했냐면, 무얼

www.artnstudy.com

미메시스 했냐면 가령, 바보 흉내를 냈다고 합시다. 가령, 공옥진과 같은 그런 흉내, 어떤 무슨 인간의 어떤 신체의 불구 같은 것을 흉내 냈다고 쳐요. 그러면 모방을 하면, 배우가 모방한 거지요? 그럼 배우 자신이 전염력을 준다고 하면 그 배우가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염력에 의해서 이 성품의 상태에 빠져야하지요? 그지요? 플라톤의 입장에 따르면.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은 우리가 무언가를 모방했다 하더라도, 배우가 무언가 모방했다 하더라도 그 배우 자신이 반드시 그러한 성품 같은 것을 갖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달리 모방이라고 하는 어떠한 장르, 모방하는 어떤 형식을 하나의 중요한 것으로 보는 거지요. 모방 문학을 인정해주는 셈이 되는 거지요.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과도한 해석일지도 모르지만, 하나의 예술이 갖는 독특한, 모방하는 장르가 갖는 모방이 갖는 어떠한 특수한 분야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지요. 플라톤은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가지고 이 모방하는 것이 인간의 성품에 나쁜 도덕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나 배우가 실제로 실연하는 걸 보면 이러한 전염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전염력이라는 것보다도 이러한 모방하는 양식들이 갖고 있는 다른 독특한, 예술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떠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는 효과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 여지를 도덕적인 기준 이라는 것, 진리의 기준이라는 라는 걸 가지고 모방의 영역을 가능한 한 제거 시키려고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에서, 내가 비극의 어떤 실제로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배우가 돼서 연기했다고 해서 내가 오이디푸스와 같이 동화되고 오이디푸스와 같은 성격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플라톤과 달리 모방의 영역이라는 것이 도덕적이고 진리의 영역과 다른, 어떤 예술의 독자적인 어떠한 가치를 열어줄 수 있는 대목, 그런 것을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시학에서 간간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 성격 모방의 방식 - 드라마와 행동(dran)

이와 같이 모방은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수단과 뭔가를 가지고 또 대상, 모방은 처음에 말한 바와 같이 메디아가 되는 것, 수단이 되는 것 그 object가 되는 것, 엘제라는 사람은 'media, object and method' 라고 번역했네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앞에 1장에서 한 얘기지요. 이것은 수단과 대상과 방식. “그리하여 소포클레스의 모방은 선인을 모방한다는 점에서 호메로스의 극과 유사하지만 등장인물들을 실제로 행동하는 자로서 모방한다는 점에서는 아리스토파네스의 그것과 유사하다.” 이게 소포클레스나 아리스토파네스는 실제로 행동하는 자로써 모방해요. 그러나 호메로스는 등장인물 가지고 하지는 않지요. 거기서 이제 앞서 세 가지 방식 첫 번째의 경우지요? 서술체로 또 말하는 경우에 따라 서술 쭉 하다가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해서 직접 말하게 하기도 하고 또 소포클레스나 아리스토파네스는 세 번째 방식으로 배우들이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이러한 작품들이 드라마라고 불리게 되는 것은 이러한 작품에서는 등장인물이 실제로 dran, 행동하기 때문에 소포클레스나 아리스토파네스 경우를 dran으로 불리는 것은, dran이라는 말 썼어요, 행동. 등장인물들이 직접 나와서 행동한다 라는 뜻에서 드라마라고 불려 졌다는 것. 드라마의 하나의 어원적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 작가이고 소포클레스는 비극 작가인데 공통점은 대개 인물들이, 배우들이 행동한다는 측면, 그런 점에서 서사시와

www.artnstudy.com

는 다르다. “그리고 도리스 인들은 자기들이 비극과 희극을 창안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희극은 메가라 인들이 창안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희랍 본토에 사는 메가라 인들은 메가라가 민주정체가 되었을 때 그곳에서 희극이 생겨났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켈리아 섬에 이주한 메가라 인들은 그곳 출신인 에피카르모스가 키오니데스나 마그네스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기들이 희극을 창안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극, 희극이 어디로부터 유래했느냐 하는 기원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주장들이 있다 는 것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는 시학에서 그 명확한 증거들이 있는지 그것은 글쎄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다 일일이 검토할 필요는 없겠지요?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측면이니까. 하여튼 그 드라마의 발생, 왜 드라마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배우들이 행동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붙였다는 것, 행동하기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희극과 비극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느냐 하는 이러 저러한 얘기가 있다는 얘기.

▲ 드라마의 어원

다음 4행에 가서, “펠로폰네소스의 도리스 인들 중에는 비극도 자기들이 창안해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komoidia(희극)와 drama(드라마)란 말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의 말인즉 자기들은 도시 주변의 촌락을 kome 라고 하는데 아테나이 인들은 demos라고 하며 komoidoi(희극배우들)란 말은 이들이 음주유락(飮酒遊樂)…” 술 먹고 komazein 하는 데서 음주유락 이런 말, 아테네에 의해서 데모이에 하는 것을 komazein 이라고 하고 또 뭔가 리벨링 하는 것, komazein 한다는 것, 마을 이라는 것에 결합시켜 가지고 코미디아 라는 것이 나왔다 하는 어원 설명이네요. “이들이 인기를 잃고 도시로부터 추방당해 도시 주면 촌락을 순회한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촌락들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들은 행동하는 것을 dran 이라고 하는데, 아테나이 인들은 prattein 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prattein 이라는 말도 행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잘 행위 한다 할 때도 prattein 한다고 하지요? 잘 산다 할 때도 prattein 이라고 해요. dran 한다는 것하고 차이를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3장의 끝에 가서는 “모방의 차이점의 수와 성질에 관해서는 이만 해두기로 하자.” 여기 3장 까지가 일종의 서론 격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얘기를 문예 비평 쪽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3장까지가 서론으로, 1장에서 전체의 골격, 앞에 얘기하고 모방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고, 장르가 있고 모방하는 수단과 또 그 수단에 따라서 장르가 구별되고 한 다음에, 여기까지 드라마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드라마라는 게 어떤 거고, 시의 장르의 구별이 생긴 것까지 얘기하고…, 드디어 4장에 와서 예술의 본질이 뭔가 하는 걸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www.artnstudy.com